



02 **보도** 필요한 책을 한눈에, 브라우징 서가 설치

03 **사회** 대학교 학과 통폐합 논란

05 **사람** 기업은행 정성훈 소장을 만나다

06 **학술** 마약을 귀로 듣는다? 아이도저

07 **문화** 우리는 함께 산다! 세어하우스

## 지금 대학은 '특성화'중

## 대동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다

###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대학 정원을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에 비해 대입정원이 급격히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주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구조개혁 기간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절대평가로 평가된다. 각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최우수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입학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라는 조치를 받는다.

평가에 따른 결과로 퇴출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구조개혁을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도 유도하고 있다. 즉 현재 대학가는 '정원 감축'이라는 미션아래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지금 대학은 '특성화'중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함께 대학가에 몰아친 두 번째 폭풍은 바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이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역시 그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있다. 이에 이번 특성화 사업은 구조개혁과 연계해 대학 체질 개선 및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대학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 제고를 꾀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중요해진 만큼 정원을 감축하고 사회적 변화를 수용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등 대학 자체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사업관리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546억 원이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학 자율 유형인 I 유형과 국가 지원유형인 II 유형이다.

I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할 분야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이다.

II 유형은 학문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 본교 특성화사업단 윤곽 드러나

본교는 대학자율 유형인 I 유형에 융합컨설팅 학부, Emerging 산업 중

###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의 본교 사업단>

대학명	사업단명	사업단장명	지원분야	참여학과
한성대학교	융합컨설팅학부	정진택	대학자율	영어영문학부(야) / 경제학과(야) 행정학과(야) / 공공인재학과(야)
	Emerging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형 디자인 융합교육 사업단	지상현		시간·영상·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주,야)
	글로벌서비스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강명수	국가지원	무역학과(주,야)
	한류문화콘텐츠전문가 육성 사업단	김정우		한국어문학부(야) 지식정보학부(야) (교양학부)
문화예술융성학부	김미지	무용학과 / 인테리어드자이학과		

심의 클러스터형 디자인 융합교육 사업단, 글로벌 서비스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으로 3개의 사업단이 신청했다. 국가 지원유형인 II 유형에는 한류 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 사업단과 문화예술 융성학부로 2개의 사업단이 신청했다. 이렇게 총 5개의 사업단이 이번 특성화 사업에 신청했다.

이렇게 지원한 사업단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평가는 현재 여건의 정량 여건을, 2단계에서는 사업단의 정성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이후 1단계와 2단계의 평가를 합산해 최종 사업단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대학 점수는 30%와 사업단 점수는 70%로 계산해 총점을 낸다.

###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도 정원 감축이 중요

특성화 사업과 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산점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도 가산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성화 사업은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된 만큼 정원 감축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4~7% 감축 3점 ▲7~10% 감축 4점 ▲10% 이상 5점이다. 가산점이 사업단 선정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감축정원 비율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노재학 기획협력처장은 "우리학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가가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감축 비

율을 의무로 드러내지 않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되었고, 사업 신청은 이달 말 마감 예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은 "이번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이전 정부의 특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은 졸속 추진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원 감축을 가산점 내세워 결국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 특성화 사업이 비단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지난 해 대동제에서 초청가수 배치기의 공연에 환호하는 학생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대동제가 5월 7-9일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학교의 최대 축제인 대동제에서는 대체로 운 행사와 공연이 펼쳐진다.

한성대방송국(HBS)이 주최하는 '낙산가요제'는 둘째 날인 8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낙산가요제에서 펼쳐질 공연은 본선이며 예선은 오는 26, 27일 이틀간 치러진다. 예선에서 선정된 열 팀만이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본선에서 우수한 세 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타대생도 참가 가능) 순수 창작곡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9시부터는 초청가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우리들의 작은 가게(Pitapattin day)'도 열린다.

우리들의 작은 가게란 20만원의 소자본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부터 실제 판매까지 본인이 직접 소가게를 운영 하는 것이다. 창업에 관심있는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14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성과에 따라 상금이 주어진다. 오는 18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주점은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 열린다. 예년과는 달리 주점의 마감시간이 생겼다. 둘째 날은 오후 11시에 마감이며 마지막 날은 마감시간이 없다.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의 주점에서는 총학생회 임원들이 순찰을 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주점 출입여부, 사고 등을 감시하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알립니다

이번 호 5면 '교직원들 만나다'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휴재합니다.

### 사령

임현정은 취재부장(무역 3)      면박상희 정기자(무역 2)  
윤지은 정기자(의패 2)

### 바로잡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발행한 488호 1면의 <대학정원 감축> 과 <특성화사업>에 주려)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보도된 기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 강신주의 감정 수업

제22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 저자와의 만남 |

일시 :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14시 ~ 16시

장소 : 미래관 DLC

진행 : 1부\_다독상시상

2부\_저자와의 만남 강연

저서 증정 / 저자 사인

\*지역주민도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Hansung University

행운권 추첨  
저서 증정

철학자 강신주가 읽어주는  
욕망의 인문학



학교 이용률 시리즈

# 본교 학생들 교육장학금 얼마나 이용하나?

재학 중 학교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본교 여러 부서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다. 이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학교 이용률 시리즈'를 기획했다. 첫 번째 기획은 취업·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학금 이용률'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장학금을 사용해 본 적 있는가? 교육장학금은 취업 목적으로 한 교육자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취업·창업지원팀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장학금의 적용범위는 교내 프로그램 전액, 외부 학원비 50%, 공인 시험응시료 3가지이다. 교육장학금은 교육후련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지난 2012년에 교육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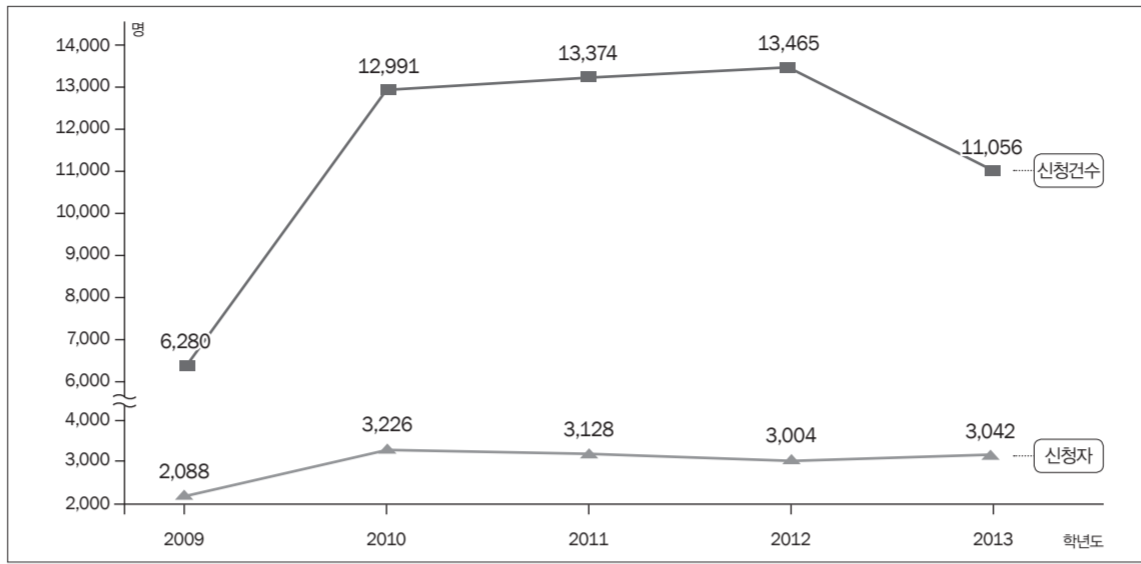
2011년 13,374건, 2012년 13,465건, 2013년 11,056건이 접수되었다.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신청건수가 2013년에는 크게 감소했다. 그 이유는 '응시료 신청 시 시험결과물 첨부'와 '매년 진로계획서 작성'이란 제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의 이용률(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은 2009년 33%, 2010년 52%, 2011년 49%, 2012년 46%, 2013년 48%를 기록했다. 5년간의 이용률을 보았을 때 2010년을 제외하고 교육장학금을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육장학금을 이용할까?

지난 5년간의 교육장학금 학생 이용률(중복학생 제외)을 알아보았다. 교육장학금의 신청자 수는 2009년 2,088명, 2010년 3,226명, 2011년 3,128명, 2012년 3,004명, 2013년 3,042명을 기록했다. 신청건수는 2009년 6,280건, 2010년 12,991건,

### 왜 교육장학금의 이용률이 낮을까?

앞서 말했듯이 교육장학금의 적용범위는 교내 프로그램 전액, 외부 학원비 50%, 공인 시험응시료 단 3가지 뿐이다. 교육장학금 안내에도 '개인과의, 사업자등록 없는 학원과 취업관련(헬스, 요가, 요리 등), 운전면허학원



▲ 5년간의 교육장학금 신청자 수 (중복제외)와 신청건수

신청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육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무용 학과나 회화과 같은 예술대학교 학생들은 교육장학금을 이용할 기회도 거의 없다. 실제로 작년 '대학과 지성' 수업에서 한 회화과 학생이 회화과 실습시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교육장학금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신일 총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취업·창업지원팀은 '실습재료 구입비 지원은 취업목적의 자기계발이라는 교육장학금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적합하고, 회화과 수업에 필요한 공동재료들은

학교교수님들의 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재료 구매예산에 맞추어 동양화, 서양화학과 수업별로 균등하게 구매 및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낙산의 메아리에 남긴 바 있다. 2014학년도 학생요구안에서는 교육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급범위와 지원금 확대가 포함되기도 했다.

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취업을 위한 방법이 학원이나 공인시험을 통한 관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학사행정에서 학생들에게 지원금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김양진 차장은 "선의를 피해 최소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답했다.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 지급보다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장학금을 이용하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모호한 지급범위 개선이 시급

교육장학금은 타대에도 알려질 만큼 학생들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하지만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교생의 반도 교육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취업을 위한 방법이 학원이나 공인시험을 통한 관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학사행정에서 학생들이 지원금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김양진 차장은 "선의를 피해 최소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답했다.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 지급보다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장학금을 이용하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지난 4일 몽골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오종근(산학협력단) 교수가 '몽골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11월 본교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종료 프로그램 사후관리사업'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몽골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사후관리'와 '콜롬비아 국립도서관 역사자료 디지털화·보존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학술정보관 로비에 '브라우징 서가' 설치되다

학술정보관 로비에 '브라우징(Browsing) 서가'가 설치되었다. 브라우징 서가란 일종의 오프라인 도서검색대.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전시해놓은 책장이다. 도서관에 분야별로 어떤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관심있는 도서를 그 자리에서 읽어볼 수 있다.

학술자료팀 김현미 차장은 "작년에 학술정보관 로비를 리모델링하면서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파와 책상을 비치했다.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보다 손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브라우징 서가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브라우징 서가는 신착도서, 세계문학전집, 한성권장도서, 교수저서 4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신착도서 코너는 새로 들어온 책을 일주일간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간도서를 소개한다. 세계문학전집 코너와 한성권장도서 코너는 대학생들의 필독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성권장



▲ 학술정보관 로비에 설치된 '브라우징 서가'의 모습.

도서 코너는 한성대 교수들이 선정한 분야별 대학생 필독도서가 전시되어 있다. 교수저서 코너는 본교 교수들의 저서가 비치되어 있다. 신착도서, 세계문학전집 코너의 도서는 브라우징 서가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한성권장도서와 교수저서 코너의 도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브라우징 서가의 모든 책들은 자료열람실에서 대

출이 가능하다. 김현미 차장은 "학술정보관은 학생들에게 독서공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술정보관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간추린소식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모집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한국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수강료는 80만원이지만 한성대학교 졸업생 및 교직원들은 20% 할인된 64만원이고 한성대학교 재학생은 40% 할인으로 48만원이다. 재학생의 경우 수강료 중 일부는 교육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교육장학금을 후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창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윤숙(한국어과정) 실장은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 교원3급 자격증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월·화·목요일 주 3일간 진행되며 수업은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오는 25일까지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에서 주관하는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예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올해 3번째 개최되는 이 대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자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실주거지가 해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신기하고 매력있는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이다. 예선은 동영상 제출로 대신한다. 본선에서 발표한 내용 전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이인혜(언어교육원) 강사는 "관람객에게 주춤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한 본교 무용단과 국악가수 비단의 축하공연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예선결과는 5월 13일에 발표되며, 본선은 5월 21일에 개최된다. 본선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되며 수상팀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 우수강의 수필공모전 안내

오는 5월 22일까지 우수강의 수필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대상 강의는 2013년도 2학기 강의이며 휴학생 및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다. 우수강의 수필공모전은 우수강의 사례 발굴을 통해 강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필에 대한 주제는 자신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경우 등이다. 장창성(교육개발 연구원) 연구원은 "학생들의 수필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총 8명이 수상한다.

### 잉글리쉬 라운지 Group Speak 2차 모집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잉글리쉬 라운지에서 2014년 1학기 Group Speak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Group Speak은 4명에서 7명까지 그룹을 이루어 잉글리쉬 라운지 상주 교수와 영어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4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잉글리쉬 라운지에서 주 1회 1시간씩 진행된다. 수업 내용은 원어민과의 프리토킹, 토익, 오픽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은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의 Group Speak란에 글을 게시하거나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선발은 인원과 시간, 스티디 플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재윤(잉글리쉬 라운지) 조교는 "특별한 비용이나 자격 없이 원어민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정란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개최하는 '2014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학부학생인 조제민, 류은미 학생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작곡시스템 연구」를 발표한다.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구리시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2015년 4월까지 활동한다.

**나은미(언어교육원) 교수** 나 교수는 한국화법학회와 한국작문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교양교육으로서 토론 교육의 현황 및 토론 화법의 연구와 교육"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facebook

## 한성대 신문사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hsupress>



한성대프레스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페이스북을 통해 학내소식과 다양한 이슈를 전하겠습니다.

# 학과 존폐 위기 '학생의 권리'는 어디에

내가 졸업한 혹은 재학중인 학과가 없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전국대학교 대학구조개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학구조개혁의 대처 방안으로 실시되는 학과 통폐합이 대학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생들이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학교의 존속 문제인가?', '학교의 존속 문제인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소통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논의하지 않는 모습에 분개하고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와 서일대학교를 취재해 보았다.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부총학생회장의 식별식 모습. (제공: 경기대 학보사)

## 캠퍼스 간 동일 학과 통폐합

지난 3월 24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실시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비한 정원감축(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과 통폐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 농성은 4월 3일 총장과 40여 명의 면담을 통해 11일 만에 막을 내렸다.

3월 19일 학교 측은 '경기비전 2024'에 따라 서울캠퍼스의 8개 학과(국문, 영문, 경영, 무역, 회계, 경제, 법, 행정)를 수원캠퍼스 동일학과와 통폐합할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학생회에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며 삼천배와 삭발식, 방문 항의를 진행했고, 학생총회 이후 총장실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통폐합 추진은 계속되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임승현 씨는 "대학구조조정은 2012년도부터 논의되어왔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학생회는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학교와 함께 대학구조조정 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세 번의 학생총회를 통

해 대학구조조정 반대를 외쳤지만, 학교는 학생들과 논의 없이 '학과 통폐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평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총장의 싸인만으로 안건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1일에 진행된 평의원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현재 총학생회와 8개 학과(통폐합 대상)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폐합을 있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과들의 반발로 인해 학교 측은 폐과 통보를 취소하고 '문예창작과와 미디어출판과를 하나의 학과로 통폐합', '연극과와 영화방송학과를 하나의 학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 이후 학생들은 학교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일대 문예창작과 학생회장 이준호 씨는 "학교는 신입생이 입학한지 3

학과 통폐합의 대상이지만 이를 통보조차도 받지 못한 학과가 있었다. 통폐합에 대한 정보를 '서일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서일대 미디어출판과 학생회장 박주희 씨는 "학교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당시 교수님과 조교님도 전달받은 것이 없어 당황했다.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의 자리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학교 측에게 '왜 문예창작과와 미디어출판과가 통합해야 되는지'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탄식했다.

문예창작과(예체능계열)는 문학을 창작하는 것이 목적인 학과이고, 미디어출판과(공평계열)는 전문 직업교육에 특화된 출판학과이다. 이 두 과는 특성과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통폐합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현 사안에 대해 서일대 총학생회장 김정우 씨는 "서일대의 모든 학과가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통폐합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동의한 상태이다. 학교 측은 통폐합 실시 이유로 ▲ 취업률 ▲ 교원확보율 ▲ 교수평가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지만 '교원확보율'과 '교수평가'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학교만이 아닌 정책적인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서일대 총학생회는 타대 총학생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가치와 그 기준을 '취업률'에 끼워 맞추듯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지성과 담론의 공간인 대학에서 소통없는 생존이 의미 있는 생존일까.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학생들은 반대시위로 대응

### 학과 통폐합 소통거부

서일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에 반영되는 지표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예창작과'와 '연극과'에게 폐과를 통보했다. 이에 서일대 연극과 학생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폐과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교내 침묵시위'를 실시했다.

주 만에 폐과를 통보했고, 3일 뒤에는 통폐합을 제시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학교의 대처에 어떤 기준으로 통폐합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지난 4월 10일 감사원에서 침묵시위를 실시하는 등 매일 교내시위와 교외시위, 성명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과는 학교에서 폐과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사자들과 교섭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이다.



▲ 서일대학교 문예창작과와 연극과의 교내 시위 모습. (제공: 서일대학교 학보사)



▲ 서일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교내 시위 모습.

## ! 직업, 경계와 통(通)하다

# 대체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고민하라

'회사에서 당장 나가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인의 대다수가 이 질문을 맞닥뜨린다면 가슴이 먹먹해질 것이다. 특히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 답답함은 보다 더 할 것이다. 연차가 높다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에 상단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고, 그 자리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답답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에서의 많은 인력이 대체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에서는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무려 70%에 달하는 인력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감축은 소수 자체만으로도 불변한 일이지만, 보다 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업무가 대체되어 회사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인력이 대체가능하다는 것은 평생을 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운 빠지는 일일 것이다.

한편, 경제학에서 '대체(substitution)'란 대신하여도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주로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직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력거꾼이 택시기사라 바뀌듯 직업 자체가 다른 직업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동일한 직업을 가진 인력 내에서도 일어나는 대체도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과 그 안에 놓인 경제적 개념이 알려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한 가지만 꼽으려면 장기적인 가치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내일이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가치라니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확실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고민이다. 고작 기업의 인력조정 정책에 의해 내 인생 전체가 휘둘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고민하라'고 바꿔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는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규모의 인원감축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어쩌면 자연재해와 같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회사가 사라졌다고 해도 업(業)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장이 아닌 직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직장이 아닌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구분해보는 것부터 시

작된다. 자신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비로소 아주 조금씩 나 자신이 보일 것이다. 직업을 직장보다 먼저 고민할 때 앞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은 연차가 아니라 경력이고, 그 경력은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결국 직장 내에서 나를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직장은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치열한 고민으로 미래에 대해 갖는 확신을 '비전'이라고 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의 외풍에 휘청 일지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직업 내의 다른 직장에서 얼마든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번지르르한 직장의 겉모습에만 이끌려 떠밀리듯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흔한 대체가능한 인력이 되어 더 이상 '연차'를 쌓지 못할 것이다.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곳이 아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직업과 비전이 직장을 보다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직장이 아닌 직업을 먼저 고민하라.

김동영 KY 전문연구원

## ! 사회를 보다

# 칠곡 계모 사건, 법에는 심장도 있어야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SBS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매우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다. "법에는 심장도 있어야 한다" 극 중 차관우 변호사와 김공수 판사가 서도연 검사에게 한 말이다. 최근 이 명대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칠곡 계모 사건'이다. 칠곡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8세 아동 A양이 계모의 폭행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A양 친인척의 진술에 따르면, 계모가 누워있던 A양의 배를 10차례 이상 발로 밟고 15차례 이상 주먹으로 때렸다.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실신까지 했으나 계모는 이를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장과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얼마 전 발생했던 '울산 계모 사건'의 충격이 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울산 계모 사건은 8세 여아가 계모의 폭행에 의해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사망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 계모가 의붓

딸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장, 사망 아동이 8세 여이라는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울산 계모는 검찰로부터 '살인죄'를 적용받아 사형이 구형된 반면 칠곡 계모는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 측은 "울산 사건은 계모가 수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나, 칠곡 사건은 계모가 배를 밟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때린 것으로 보아 살의 진술에 따르면, 계모가 누워있던 A양의 배를 10차례 이상 발로 밟고 15차례 이상 주먹으로 때렸다.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실신까지 했으나 계모는 이를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장과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이같은 사유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시간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성인이 8세 아이의 배를 10차례에 걸쳐 힘껏 발로 밟았는데 이 행위에 살의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 아이의 사망시점이 어찌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똑같이 아이를 죽게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즉사했으니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친 친히 숨을 거뒀으니 더 가벼운 벌인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 오히려 친 친히 죽어갔다면 그 시간동안 아이가 느꼈을 말 못할 고통까지 형량에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아동은 무려 이를 동안 내장이 파열된 채로 음식물이 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물론 구형·판결을 비롯한 법적인 단은 물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법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법에는 이성과 합리뿐만 아니라 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디 칠곡 계모가 '심장이 있는 법'의 심판을 받아 헛값을 치르길 바란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2014년 성북구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대학생) 모집 안내

성북구청이 후원하고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이 주관하는 '2014년 성북구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한성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모집 대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2. 모집 일정** : 2014년 4월 7일(월)~4월 25일(금)
- 3. 활동** : 성북구 다문화 가정 아동(멘티)과 한성대학교 대학생(멘토)의 1:1 멘토링 활동
- 4. 활동 주요 내용**
  - 1) 11 방문 학습 지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학습 지도를 통한 기초 학력 보강, 부진한 교과목 특별 지도, 자기 주도 학습 방법 지도
  - 2) 정서적 지원 활동 : 미술, 음악, 체육 등의 활동 및 고민 상담, 진로 상담
  - 3) 문화 체험 학습 활동
- 5. 선발 인원** : 20명 내외(멘티 인원과 동일)
- 6. 지원 자격**
  - 1)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4학년 2학기 학생 제외)
  - 3)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사(토요일 포함)에 빠지지 않고 참석 가능한 자
  - 4)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수행할 책임감 있는 자
  - 5) 학습지원, 진학상담, 역할 모델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 적합한 근면 성실한 자
- 7. 활동 혜택**
  - 1) 활동비 • 방문 학습 지도 활동비(시간 당 1만원이며, 총 25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지급함) • 문화 체험 학습 활동비(시간 당 1만원, 총 20 시간과 교통비는 별도 지급함)
- 8. 선발 절차**

일정	내용
2014년 04월 07일(월) ~ 2014년 04월 25일(금)	서류 접수
2014년 04월 28일(월)	1차 서류 합격자 발표(전화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2014년 05월 01일(목)	면접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2014년 05월 0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전화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9. 지원 방법** : 진리관 208호 한국어과정 사무실에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1) 신청서(←첨부 파일) 2) 활동 계획서(←첨부 파일) 3) 학부 성적 증명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본 가능) 4) 각종 증명서(봉사활동, 외국어 공인 성적 등 : 소지자에 한함)
- 10. 프로그램 일정**

일정	내용	
2014년 05월 12일(월) ~ 2014년 12월 06일(토)	멘토링 활동 기간	
	1학기	5월 12일~7월 19일
	방학	방문 활동 없음
2014년 05월 07일(수)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1차 멘토 교육	
	2학기	8월 25일~12월 6일
2014년 05월 10일(토)	결연식	
2014년 05월 24일(토) 2014년 07월 19일(토) 2014년 09월 20일(토) 2014년 11월 01일(토)	문화 체험 학습 활동	
	반일 활동	5월 24일, 9월 20일, 11월 1일
	종일 활동	7월 19일
2014년 05월 30일(금) 2014년 09월 06일(금) 2014년 10월 31일(금) 2014년 12월 06일(토)	멘토 교육 및 간담회	
	해단식 및 멘토 평가회	
- 11. 문의** :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사무실 02)760-4374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홈페이지(http://hansung.ac.kr/web/language) 참조



# 한성인이여, 청마(靑馬)를 달려라!



교단에서

장희목 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초목이 겨우내 기다렸지만 도도한 봄은 오자마자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한다. 지금은 싱그러움과 활기가 흠날리고 꽃비가 내리는 때이다. 한국은 일 년에 사계절이 있는데 계절마다 특색있고 준비할 일이 많아 번거로운 반면 우리 민족은 자연을 통해 원초적인 다양함을 몸으로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저절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21세기 경제 산업의 새 화두로 주목 받게 된 '융합'의 대유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융합에는 탐색의 의미와 창조적 개념이 함께 녹아있는데 예술과 인문학은 탐색수단이 고, 과학과 기술은 활용수단이다. 창조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용감히 걸을 수 있는 개척자가 되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낸다. 창조자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고 깊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내면을 표현하는 통로로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고, 예술

을 보면 당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욕구를 적중시킨 혁신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예술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문학에는 인류의 역사가 집대성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원할지도 탐색해 볼 수 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해야 과학과 기술이 경연과 연결고리가 되어 혁신제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인문학 정보 속에서 잘나쳐버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직관인데 창조경영은 정보에서 직관이 나오고 그것을 사업논리로 바꾸는 단계를 거친다.

창조경제의 문턱에서 기업들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과 함께 국내외 사회와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예술적 개입이 무엇인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이다. 21세기는 풍요의 시대로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전 시대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음에 따라 인간의 보다 높은 심리적 만족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창출이 갈수록 중요

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감성적 가치를 창조하는 '하이컨셉'과 타인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이테크'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최근 디자인경영이 기업 혁신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과학자의 생각처럼 논리적이면서 분석적인 사고와 예술가의 생각처럼 감성과 직관을 중시하는 사고를 융합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중심의 다학제적 협업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유형의 혁신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일부 디자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된 것이다.

무궁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한성대학교 학생들은 심도 있는 고유 전공 분야의 탐구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교육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리라 믿는다. 생동감 넘치는 청마(靑馬)의 해 파릇한 봄날, 창의적 사고의 유희를 만끽하기를...

## · 사 설 ·

### 교육부의 횡포

최근 대학가의 핫이슈는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공약적 목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교육부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대학에 큰 영향을 주는 교육부 구조조정 정책 중의 하나가 야간과정 정원 감원의 경우 50%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소문으로 떠돌던 이 정책이 며칠 전 대학 당국의 정보 공개에서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어쩌면 지난 겨울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온 우리 대학 특성화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이대로 특성화를 진행하면 야간과정의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야간과정 정원 감원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만약 이 입장대로라면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야간과정이 야간과정에 비하여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야간과정의 공동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세월이 흘러 야간과

정이 주간과정보다 더 경쟁력이 있게 되면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대학들은 앞 다퉈서 주간과정을 야간과정으로 돌릴 것이 자명하다. 또한 왜 50%인가? 교육부는 적어도 50%만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이미 제시하였으나 정박의 미공개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야간에 큰 영향을 주는 교육부 구조조정 정책 중의 하나가 야간과정 정원 감원의 경우 50%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소문으로 떠돌던 이 정책이 며칠 전 대학 당국의 정보 공개에서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어쩌면 지난 겨울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온 우리 대학 특성화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았을 것인듯, 대학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며칠 전 대학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질의를 하였는지 교육부로부터 '이 정책은 변경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질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무슨 질의를 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질의만 하여도 괜찮은 사안인가? 적어도 교육부가 내세우는 구조조정의 본질과의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야간과정이 야간과정에 비하여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야간과정의 공동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세월이 흘러 야간과

## 값진 2년 동안의 경험



기자수첩

현정은 기자  
(무역 3)

벌써 한성대 신문사 기자라는 이름을 단지 4학기째이며 마지막 학기다. 대학교에 입학한게 엊그제 일만 같은데 벌써 3학년이다. 한성대 신문사 기자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1학년 2학기였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많은 것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1학년 1학기에는 정신없이 놀기만 했다. 2학기에는 '좀 더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아야지'란 생각을 하던 도중에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공고'가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지원하고 얼마 후 신문사 면접을 봤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면접 끝난 후에는 양손이 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면접에 합격해 37기 수습기자가 되었고 내가 맡은 첫 기사는 '외국인 한국어 뽀빠기 대회' 모집 기사였다. 내 손으로 처음 쓴 기사가 신문에 실리게

되어 떨리고 좋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취재부 정기자 되었다. 취재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학내보도를 하는 부서라 교내에서 취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써야하는 기사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기사 수가 많을수록 인터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늘 항상 학교에 있어야 했다. 기사마감 주에는 밤을 새기 일쑤였다. 물론 기사를 쓰면서 실수한 적도 있었다. 이름이 잘못 들어간단다. 수치 순서를 변경한 채 신문이 발행된 적도 있다. 또 언젠가 한 번은 취재 때문에 수업에 못 들어가 교수님이 호통을 치신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템의 선정과 취재다. 2주마다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 매번 아이템 선정

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취재부는 학내 보도를 다루다보니 새로운 아이템 찾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였다. 취재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접촉하기를 꺼려해 허락치기가 일수였던 것이었다. 외부 취재도 인터뷰할 사람을 접촉하기 어려워 기사작성 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신문을 만드는 조판 날에는 면 작업속도가 느려 새벽 3시에 마친 적도 있었다.

돌아켜 보면 대학생생활하면 떠오르는 것은 신문사 생활뿐이다. 학보사 기자는 대학생활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다. 이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한성대 신문사 기자직을 내려놓고 일반 학생신분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2년 동안의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 새내기가 말하는 캠퍼스 라이프



낙산에 올라

한지신 학생  
(의생학 1)

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돋는 봄이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자니 포근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우리 애기 출퇴근하고 산책할래?' 아닌 대리출석 후 지맥도 좋구라며 유혹의 말을 건네는 것 같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새내기의 캠퍼스 라이프

처음 3월 학교생활을 할 때는 대학생활 과연 질할 수 있을까? 이런 떨림과 모두들 꿈꾸는 캠퍼스 생활에 괜히 설레기도 했다. 대학생활이라 하면 이런 상상 한번쯤은 해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캠퍼스를 누비다 푸푸 푸푸- 혼남, 혼녀에게 반호도 따이고, 이성 친구들과 미팅, 캠퍼스 커플 등 모두 이런 캠퍼스 생활 꿈꿔왔지? 결론은 ASKY 안생겨요!였다. 물론 생길 사람들은 다 생기지만 내 경우에는 그랬다.

이렇게 이상과 다른 대학교 생활에 슬퍼

하며 대학생활에 점점 적응해 갈 때 즈음 쌀쌀한 꽃샘추위는 가고 봄바람 살랑이는 완연한 봄이 왔다. 새로 사귄 동기들과 부러워 마셔라 하며 술도 먹고, 학교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신입생 환영회, 엠디 등등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하고 싶었던 과제 폭탄과 중간고사 시험이 찾아왔다. 밤샘 과제를 하느라 잠도 별로 못 자고, 그렇다고 동기들과 마시는 한 잔의 술을 놓칠 수도 없고 중간고사 시험 준비는 해야 하고 다하기는 버차고 하나를 놓치자니 아쉬운 순간의 연속이었다.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고 걱정이 앞섰다. 상대평가 세칙이 변경되어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줄어서 그만큼 학점을 받기도 힘들어졌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 보는 시험이라 걱정이 먼저 앞서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웬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대학교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 내심 설렘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도 대학교 시험은 중고등학교 때와 어떻게 다른지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시험에 대한 설렘을 갖고 캠퍼스의 로망이었던 도서관에서 밤새워 시험공부를 해 보고 싶다.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걱정도 하고 설렘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1학년 생활을 더욱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즐겁다.

## 졸업생뿐만 아닌 모두가 아는 졸업준비위원회



한성인께

김경민  
졸업준비위원회  
정위원장  
(역사문화 4)



박수빈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경영 3)

작년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국장역할도 마음에 들었지만, 학우들을 위해 좀 더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이었고, 9월이 넘어가면서 학생자치기구 중앙기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중앙기구인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보다도 졸업준비위원회에 마음이 간 것은 내년 '본인'이 4학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년보다 4학년과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중앙기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앨범촬영과 졸업식은 모든 4학년들을 올라가는 학우에게는 취업준비 속에서, 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학사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배들을 보면 선배들은 졸업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앨범, 졸업식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똑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작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선되고 나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저학년 학우들도 알 수 있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4학년이 되면 마주해야 할 중앙기구라면 저학년 때부터 알고 있다면 좀 더 친숙하게 앨범, 졸업식과 관련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앨범, 졸업식만이 아닌 졸업준비위원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졸업준비와 관련된 취업정보를 여타 다른 졸업준비위원회와 달리 취업면접가이드 보다는 실용적인 취업정보를 드리고 싶었기에 각과와 관련된 자격증, 직종, 인터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취업정보를 4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에게도 제공을 한다면 저학년도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취업정보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앨범촬영과 앨범촬영 역시도 많은 학우들은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앨

범촬영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을 한 후 5월 중순쯤에 촬영할 예정이며, 업체선정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PT,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 앨범 촬영입니다. 앨범촬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할 후 학교 측의 결제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학교 측의 결제가 필요하기에 한 두명 씩 받을 수가 없기에 저희가 기간을 결정하여 한 번에 받고 있으며 기간은 현재 세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앨범촬영, 하계학위수여식, 취업정보 책자 등의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질책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면 더욱 많이 뛰고, 겸손한 자세로 저희 28대 졸업준비위원회의 슬로건 S.O.S (Supporting Of Start)처럼 졸업할 학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저학년 분들도 모두 알 수 있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낙산만평

성민진(시각영상 4)



꿈의 대화

# 은행원의 자질은 '정직한 품성'

## 스펙이 아닌 나를 표현하라 정성훈 IBK기업은행 소장을 만나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 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 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 IBK기업은행 한성대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 인터뷰를 진행한 멘토와 멘티들의 모습.

현재 은행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김수정(한국어문 4), 윤호석(경제 4), 최진미(경제 4) 멘티들과 함께 IBK기업은행에 근무하는 정성훈 소장을 만나보았다. 경력 25년차인 정성훈 소장은 IBK기업은행 한성대 출장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인터뷰는 정상업무시간이 끝난 이후 은행 안에서 진행했다. 정성훈 소장의 답변과 직원들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멘티:** 은행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소장:** 저의 경우는 기업은행이 세 번째 직장으로 처음부터 은행원을 목적으로 공부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저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다니던 중 기업은행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고 월급이 많아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취업 준비도 힘들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멘티:** 금융권 중에서 증권이나 보험이 아닌 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계장:**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본래 금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융권 계열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직장들 중 적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증권사나 보험사 보다는 은행원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멘티:**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혹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소장:** 공부에 관해서는 주로 경제 관련 현황과 지식을 습득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에서는 올해부터 열린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자격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 시 토익점수, 자격증 등과 같은 개인 스펙을 받지 않고 있어 기회가 상당히 확대되었죠. 오히려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계장:** 저는 빠르게 취업한 편입니다. 금융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네요. 기본적인 개념 공부나 자격증들이야 모두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보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한다면 크게 힘든 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고생과 취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내는 사람이 결국 취업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지요.

**멘티:** 금융권 중에서 증권이나 보험이 아닌 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계장:**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본래 금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융권 계열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직장들 중 적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증권사나 보험사 보다는 은행원을 선택

**멘티:** 은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행원은 어떤 성향의 사람과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소장:** 은행원은 고객님의 자산과 신용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직한 품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극성, 진정성, 신중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요? 무엇보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원은 매년 처음 보는 고객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적합하겠지요? 또한 은행원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입니다. 때문에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그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밝은 성격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멘티:** 은행 업무를 하는데 알아야 할 것(지금 배워두면 좋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소장:**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행 업무는 입사해서 경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만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은행에 관련된 지식을 알아두면 좋겠지요. 무엇보다 직접 펀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알아보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을 직접 이용해 보면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체험하고 그것을 지식화 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지점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각 직급별 업무가 각자 다른가요?

**소장:** 크게는 여신과 수신업무로 모든 지점이 거의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다만 지점의 성격에 따라 주력하는 업무 비중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지점의 위치에 따라 기업금융 중심, 개인금융 중심으로 나누어 지기도 합니다. 팀별로 업무가 나뉘며 팀원

은 거의 같은 업무를 지점 여건에 따라 분담해서 하고 높은 직급일수록 책임성이 중시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멘티:** 신입행원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요?

**소장:** 은행원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보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팀내에 모든 직원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처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기진 않습니다.

**멘티:** 출장소와 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장:** 출장소는 지점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설 취지가 목적지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성대점의 경우 한성대학교와 협약(MOU)을 체결해서 들어온 것으로 한성대학교 및 관련 고객인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태 은행으로 가장 큰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멘티:** 기업은행만의 좋은 점, 분위기는 무엇인가요?

**소장:** 기업은행의 좋은 점은 첫째로 '고객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약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불안정하다면 나라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

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로 단 한번도 인수합병이 없었던 유일한 은행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IMF를 기점으로 문을 닫기도 하고 합병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조직 내부의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따뜻한 조직문화가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 중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더러 아버지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라는 자부심입니다.

**멘티:** 준정규직과 정규직의 복지는 같고 연봉에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소장:** 쉽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 2년차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매년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우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업무역량, 영입역량인 실적, 직원들과의 관계 등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전환합니다. 지금은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준정규직과 정규직의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멘티:** 최근 은행들이 열린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열린채용의 진짜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장:** 열린채용은 '색안경을 벗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스펙이 취업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채용은 사람의 소양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닐까요?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사회에 나와서도 모범생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채 또한 열린채용으로 전환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멘티:** 업무 중 난처했던 경험이나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소장:** 난처한 일과 재미있는 일 모두 고객님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후사정 안가리고 무조건 고객님의 입장에서만 우기는 고객님들이 있을 때 가장 난처합니다. 반면 고객님께서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해 주시고 만족을 표현 하실 때, 직원들과 실행한 마케팅이 의미있는 성과로 나타났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멘토 정성훈 소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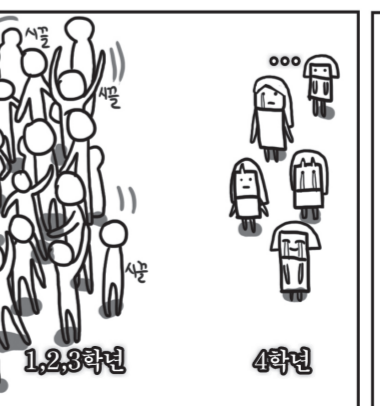


▲ 멘티 최진미(왼쪽), 김수정(가운데), 윤호석(오른쪽)의 모습.

낙산 tOOn

대학생활의  
다들인

글, 그림  
정다혜(시각영상 4)



◆ 연재기획 - 나를 자극하는 소리를 찾아서

③ 듣는 마약, 아이도저

# 소리로 마약을 경험한다? 아이도저를 파헤치다!

우리의 귀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 지난 두 호에서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을 선사하는 백색소음과 소리에서 느끼는 청각적 쾌감 ASMR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파 자극해 간접적으로 마약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거나 성적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바로 '아이도저'이다. 이번 호에서는 '나를 자극하는 소리를 찾아서' 연재기획의 마지막 '끝판 왕' 듣는 마약 '아이도저(-doser)'를 파헤친다. (편집자주)



### 아이도저란(-doser)?

아이도저란 특정한 주파수로 뇌를 자극해 향우울·항불안·각성·수면·명상 등 여러가지 효과를 낸다는 음향파일을 가리킨다. 아이도저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학명이나 개념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효과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프로그램 명칭이다.

아이도저 사이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7~13Hz), 지각과 꿈의 경계 상태라고 하는 세타파(4~8Hz), 긴장 또는 흥분 등의 효과를 내는 베타파(14~30Hz)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음원 파일을 만들었다. 각 음원파일은 우울성·처방성·정화·마약성·진정제·성적 흥분·수면·스테로이드·각성제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는 유체이탈·자각몽(自覺夢)·수면유도 등 수면과 관련한 음향과 각성제·향우울제 등 약물적 반응을 일으키는 음향도 있다. 정신의 폭발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스테로이드나 차크라 뿐만 아니라 오르가즘과 같은 성적쾌감을 음향도 있다.

이러한 아이도저는 국내에서 사이버마약이라 불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코카인·엑스터시·아편·헤로인·마리화나 등 마약 효과를 내는 음향파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도저 진짜 듣는 마약일까?

이러한 아이도저는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이도저 제작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아이도저를 개발하며 아이도저의 효과성을 홍보한다. 인터넷의 후기를 보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이도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 체험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하지만 아이도저 사용 결과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등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아이도저에 대해 전문가들은 뇌파를 이용한 감정의 변화는 아직까지 가설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

대부분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

에 대해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고 나타내는 '플라시보' 효과일 것이라는 다수설이 있다. 즉, 아이도저가 진짜 듣는 마약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다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수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저의 효과에 대해 후기를 올리고 있다. 이에 겁이 없기로 유명한 기자도 직접 체험 해보기로 했다. 아이도저는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파일로 체험해보았다.

먼저 가장 만만해 보였던 'Quick Happy'를 들어보았다. 금세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다는 파일이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괜히 입꼬리가 씩씩거리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이 결과가 아이도저 때문인지 그걸 듣고 행복해졌다는 내 자신이 웃겨서인지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었다.

이제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음원을 선택했다. 바로 'Gate of Hades'이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게오하(게이트 오브 하데스의 줄임)로

불리는 악명 높은 음원이었다. 이렇듯 겁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유튜브에서도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음원이기도 하다. 겁이 없던 기자는 도전했다. 30분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들었다. 한마디 평을 하자면 '굉장히 짜증나거나 소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정말 듣기 싫고 지루한 소음이었다. 다 들은 후 숙면을 취했다. 게오하의 실패로 아이도저 체험을 멈출 수는 없었다.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 아이도저에도 모두 도전해 보았지만 기자가 마약을 해 본 적 없어서인지, 그 마약이 불러일으키는 반응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숙면을 취했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아이도저는 바로 'Diet'였다. 이 음원을 들으면 식욕이 감퇴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자의 식욕 감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아이도저의 부작용

아이도저 체험에서 제대로 된 수확

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Gate of Hades'를 들으며 느꼈던 짜증과 불편함에서 아이도저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송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아이도저는 100Hz 또는 300Hz 등의 단순음(pure sound)만 사용하는 소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정말 듣기 싫고 지루한 소음이었다. 다 들은 후 숙면을 취했다. 게오하의 실패로 아이도저 체험을 멈출 수는 없었다.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 아이도저에도 모두 도전해 보았지만 기자가 마약을 해 본 적 없어서인지, 그 마약이 불러일으키는 반응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숙면을 취했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아이도저는 바로 'Diet'였다. 이 음원을 들으면 식욕이 감퇴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자의 식욕 감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어 배교수는 아이도저의 소리를 사일렌 소리 효과처럼 감정의 변화를 준다고 설명했다. 아이도저는 양쪽 귀의 소리주파수 차이와 진폭의 차이를 점차 크고 작게 변동시켜 자극을 준다. 따라서 우리가 사일렌 소리를 들을 때처럼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배교수는 "이러한 현상으로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한 동안 그 소리가 연상되거나 이명현상으로 남게된다"며 "이는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뚜껑을 열어보니 허무했던 아이도저

처음 소리와 관련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도 '끝판왕' 아이도저에 대한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도저는 백색소음과 달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거나 집중력을 높인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었고, 사람들의 후기도 전부 달랐다.

인간의 뇌는 약물, 충격 등의 강한 직접자극 외에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 이루어졌다고 확실적인 반응을 보이는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듣기 좋은 소리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체험해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보았지만 아이도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남겼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이도저에 대한 많은 이들이 체험했다고 후기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① 소음 속에서 찾는 안정, 백색소음
- ② 속삭임과 사각거림에 취하다, ASMR
- ③ 듣는 마약, 아이도저

심리심리 심리심리(心裏心理)는 마음 속을 제대로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좋은 관계는 행복과 건강의 KEY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것,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친구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기릴 수 있고 있는 친구, 깊은 속마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 말이다.

실제로 연구들에 의하면 행복과 건강에 있어 '좋은 관계'의 영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는 때로는 돈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돈과 권력이 없어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반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외롭다면 행복하기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돈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는 조언은 근거가 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장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같은 바이어스에 노출 되어도 병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더라도 '안색이 안 좋는데 어디 아픈 거 아냐?' 병원 가봐'라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 덕분에 병을 비교적 빨리 발견하기도 한다.

반면 외로움은 삶의 의지와 행복, 심지어 수명을 깎아 먹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일례로 외로움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로' 아플 수 있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활성화 되는 뇌 부위와 신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상당히 겹친다고 한다. 즉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신체적 고통과도 겹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외로움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도 높다. 또 같은 병에 걸려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회복이 훨씬 느리다. 외로운 사람들은 심지어 손가락을 베이는 등의 작은 상처에서 회복되는 데에도 더 오래 걸린다고 한다.

좋은 친구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특효약이다. 지친 마음을 털어 놓는 데 있어 친한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화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라는 이야기나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나를 굳게 믿어주는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가벼운 문제뿐 아니라 심지어 '실직' 같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에 마음을 나눌만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당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아무리 곤란해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생 각나는 결과이다.

이런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 만으로 우리는 눈 앞의 문제가 훨씬 '해 볼만'한 문제라고 여기게 되기도 한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노력을 보자며 마음을 다잡을 수

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부정적인 대처방법보다 문제를 직면하고 도전하는 적응적인 대처방법을 보인다.

이렇게 든든한 관계의 존재는 행복,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삶 속에서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른 데 노력하는 것 못지 않게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자. 시작은 우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부터일 것이다.

### 박진영

연세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심리학도.  
트위터 @imaum0217  
페이스북 /jinyoung.park.311493

저서  
『눈치보는 나, 착각하는 나』  
『심리학 일주일』

### 가로세로

①			②		③	
			③			
②						
		④		④		⑦
	⑤					
⑤						
		⑦	⑥		⑨	
⑥			⑧			

### 이름:

### 학과/학년/학년:

### 연락처:

### 가장 흥미로운 기사:

### 한성대신문사에게:

이번 가로세로 당첨자는 김해빈(시각영상 1)학생입니다.  
경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 가로

- ① 이탈리아 베네토주 주의 주도이며 바다위의 도시가 있어서 '물의 도시'라 불림
- ② 포유류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길고 유연한 혀로 나뭇잎을 뜯어 먹는 동물
- ③ 14~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 대표적 미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
- ④ 메탄계 탄화수소 가운데 구조가 가장 간단한 물질 화학식은 CH<sub>4</sub>.
- ⑤ 저녁 음악이라는 뜻으로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의 노래
- ⑥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 ⑦ 일반대중이 즐겨 부르는 통속적인 성격을 띤 음악, 좁은 뜻으로 재즈를 제외한 미국의 대중음악(관련어 포퓰러뮤직)
- ⑧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
- ⑨ 자원이 되는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기는 곤란

### 세로

- ① 독일의 수도, 000장벽으로도 유명한
- ②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물리학자이며 목욕을 하다가 비중을 이용해 순금과 가짜 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 ③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우리나라의 가장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 ④ 대한민국 5인조 걸그룹이고 'Saturday Night'으로 데뷔하고 '뽀빠뽀'라는 직렬 5동 홀로 영물을 일으켰다.
- ⑤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 ⑥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 ⑦ 조선 단종 원년(1453)때에 수양 대군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

만든이: 수습기자 권희민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포럼소식

**국내 테크 스타트업 콘퍼런스 belLAUNCH 2014**  
▶참가대상: 글로벌 창업, 투자, IT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싶은 누구나  
▶개최일정: 5월 14일(수)~ 5월 15일(목) 5월 9일까지 티켓 학생할인  
▶개최장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Convention Hall2  
▶대화내용: I. 웨어러블 혁명(Wearable Revolution) II. 킬러 콘텐츠 (Killer Contents) / III. 게임의 미래 (Future of Gaming) / IV. 엔젤 투자의 재정의  
▶문의: http://www.belalaunch.com

**미래창조과학 국제컨퍼런스**  
▶참가대상: '낮은 미래와의 만남-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최일정: 5월 27일(화) ~ 28일(수)  
▶개최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B1 호모니움홀)  
▶대화내용: 나(0), 우리(Human Beings), 세상(Planet)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사회 변화의 흐름, 희망과 불안,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  
▶문의: http://www.futureconference.or.kr/

# 너와 나의 공간,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동시에 우려를 전했다.

### 셰어하우스의 매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의 셰어하우스는 대부분 20~30대의 젊은이(대학생, 사회초년생 등)를 상대로 운영된다. 전월세 비용이 30~50만 원정도로 부담이 적고 보증금이 월세의 2~3배정도이거나 없는 곳도 있으니 경제적으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비용으로 혼자 집을 얻어 생활하는 것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와 같이 신경 쓰기 힘든 부분도 돌아가며 당번이 맡거나 담당스텝이 해결한다.

게다가 셰어하우스는 거주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이나 대학교 근처, 번화가 근처에 위치해있으니 통학,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하다. 아직 셰어하우스의 매력은 끝나지 않았다. 셰어하우스는 단순히 하숙이나 기숙사처럼 입주자를 밝혀 방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다. 각 셰어하우스마다 추구하는 컨셉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셰어하우스에 입주신청과 함께 면접을 본 뒤 합격해야만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비슷한 관심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생활하게 되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어느 다른 사회에서도 얻을 수 없는 공간과 관계인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치안 문제이다. 이러한 거주자들 간의 커뮤니티는 서로의 외로움을 물론이고 서로의 안전까지 상당수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간의 배려 혹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한 예로 아침 화장실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등의 사소한 규칙을 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공실이 잘 생기지 않아 입주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 셰어하우스 거주자의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일 것이다. 이에 해비재 셰어하우스에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이충원 씨에게 그의 셰어하우스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충원 씨는 “주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셰어하우스를 찾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 처음 불편하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서로 이해심도 넓어지고 협동심도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에 처음 발을 디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 1. 셰어하우스?

우리는 어렸을 적 시트콤 '논스톱'을 보며 우리의 대학 생활도 논스톱 주인공과 같을 줄 알았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청춘 대학생들이 한 집에 모여 아옹다옹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꿈꿔왔다. 하지만 소위 요즘의 대학생들은 이와 다른 현실적 문제에 마주해 있다. 논스톱 같은 대학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통학하기에도 하루가 짧다. 그렇다면 기숙사나 하숙, 자취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떨까. 이들이야말로 바로 '응답하라1994', '논스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학생들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들은 “시트콤이고 뭐고 TV속 대학생활을 바랄 때가 아니야”라고 전한다. 서울 대학가에 위치한 본교 주위에 학생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하숙집, 같은 기숙사에 여러 학생들과 거주하더라도 각자 따로 밥을 먹고 각자의 방에서 대부분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다. 역시 시트콤 '논스톱'속의 대학생활은 TV속 이야기뿐이란 것인가.

활공간이 나뉘어 있는 집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 성향이나 취미 등,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커뮤니티를 이룸으로써 서로의 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살아 갈 수 있다.

### 셰어하우스가 한국에?

'셰어하우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어떻게 셰어하우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일까. 아무래도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진출, 활동시기가 연장되어 독신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들 중, 개인주의를 지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와의 공존을 찾아 셰어하우스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해 독신가구의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권장하여 노인복지 실현하는 사례도 있다.

셰어하우스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현재 여러 셰어하우스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생 남수지(광운대학교) 씨는 “셰어하우스란 곳이 있구나 사회초년을 보내기에 괜찮은 곳이 될 것 같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전에 경험도 쌓고 한 번쯤 꼭 셰어하우스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며 “단 위생이나 치안적인 부분만 잘 지켜졌으면 한다.”라고

### 셰어하우스

당신이 대학생활의 낭만을 쉽게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 낭만에 더해 주거의 고민까지 해결해줄 새로운 주거문화가 있다. '셰어하우스(Share House)'에 주목해보자.

셰어하우스(Share House)란 영어 뜻 그대로, '함께 공존하는 집'이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침실을 제외하고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며 생활한다. 개인적인 거주공간과 공동체로서의 생

## 2. 셰어하우스를 직접 찾아가다

### 우주(WOOZOO)

“당신과 어울리는 컨셉의 셰어하우스를 찾아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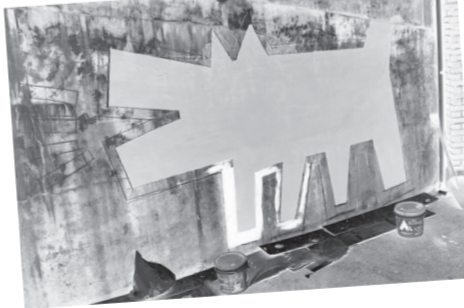
**위치:** 마포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11개 지점  
**매력:** -지점 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와 설비를 갖춘. -지점 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함.  
**컨셉:** 각 지점마다 다른 컨셉이 있는 셰어하우스(사업가를 위한 집,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 등)  
**특이점:** -컨셉과 잘 어울려야 입주 가능. -청소, 이벤트 등 대부분 입주자들의 재량으로 주어짐.  
**가격:** 월 35만원~45만원(지점 별 상이), 보증금은 월세의 2배값.



### 해비재(Habizae)

“사람들끼리 잘 노는 게 가장 중요해”

**위치:**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길음역에서 10분 거리, 상명대학교와 인접  
**매력:** -밤이되면 별보기 좋음. -사람들 간의 행사, 벽화 프로젝트, 와인시음회 등. -진정한 의미의 셰어(Share)를 추구하는 젊은 해비재 대표. -공동공간 청결은 스텝이 담당함. -셰어하우스보단 커뮤니티를 지향  
**컨셉:** 예술, 미술관을 표방한 거주 공간, 복합문화공간(특히 플레톤 콘스트랄레)을 지향함.  
**특이점:** -신뢰를 우선으로 해 보증금이 없음. -특정 계약기간도 없음. -20대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젊은이들 지원바람. -셰어하우스의 생활을 블로그에 포스팅(blog.naver.com/kkakkakka35)  
**가격:** 1인1실은 월 45만원, 2인1실은 월 35만원, 보증금 없음.



### 보더리스 하우스 (Borderless House)

“서로 배려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

**위치:** 영등포, 신도림, 강남, 동대문, 신촌 등 (총 16개 지점)  
**매력:**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촌을 느낄 수 있음. -외국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국제교류. -어학능력 향상. -매달 혹은 격 달로 셋째 주 토요일마다 입주자와 스텝이 함께 하는 이벤트 진행.

-국제적 시야와 가치관을 넓힐 수 있음. -하우스 익스체인지, 해외에도 보더리스하우스가 있어 서울의 입주자가 2주 이상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에 있는 다른 보더리스하우스에서 숙박비 없이 무료로 거주 할 수 있음.  
**컨셉:** 현지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교류.  
**특이점:** -몇 셰어하우스는 여성전용지점. -만 18세~35세 사이의 입주자 대상. -계약기간 최소 한 달 이상. -국제비율 제한, 하우스마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5:5비율.  
**가격:** 월 40만원~68만원(각 지점마다 상이함), 보증금 50만원.



학교: 핵심교양은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기사 코너입니다. 교내 교양 중 가장 치명적인 강자인 핵심교양A, B와 같이 한성인이 교양을 쌓는데, 상식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제 튜립이다

햇살 좋은날 친구랑 애인이랑 튜립축제로 봄나들이 떠나보자!

### 1. 에버랜드 튜립축제

핑크다이아몬드, 시네다블루 등의 희귀품종의 튜립과 크리스탈뷰티, 스위트 등의 이색품종의 튜립까지 약 120여종의 튜립을 관람할 수 있는 축제다. 다른 축제와 달리 놀이공원 내에서 진행된다. 눈 요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풍족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다.

-기간: 2014. 03. 21 ~ 2014. 04. 27  
-장소: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행사프로그램: 이스터(부활절) 버니 퍼레이드, 이스터 에그헌트 이외에 에버랜드 내 특별행사(물개쇼, 가족유지컬 등)  
-문의: 031)320-5000

### 2. 신안 튜립축제

임자도 튜립단지에서 열리는 신안 튜립축제는 에버랜드 튜립축제보다 약 15배 더 큰 국내 최대 규모의 튜립축제다. 올해는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2~3도 가량 낮아 19일 전후로 튜립축제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임자도는 점암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니, 여객선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기간: 2014. 04. 18 ~ 2014. 04. 27  
-장소: 신안군 임자면 대평해수욕장길 179번지 신안돌립공원(대평해수욕장 주변)  
-비용: (개인 기준) 성인 5,000원, 경로자 4,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행사프로그램: 문화행사(타악공연, 난타공연), 체험행사(자전거타기), 불거리(조형물, 전망대), 판매행사 등  
\* 축제기간 선박운항, 홈페이지 내 시간표 참고  
-문의: 061)240-4041~4043



## 빅판에게 주어진 환경



문화읽어주는 기사  
오그림

노동(판매)을 통해 수익을 얻어, 재환을 기획하는 것이다.

빅판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혹은 빅판(빅판의 판매행위를 돕는 봉사자)활동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썩생 지나가기 바쁘며 하루에 빅이슈 두 권도 팔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빅이슈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다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 '빅판의 길거리 판매 노동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만 문제다. 그들은 빅이슈를 판매할 때 서있어야 하며, 빅이슈를 판매하고 있음을 소리쳐 알려야 한다. 물론 길을 지나가 그 외침을 듣고 빅이슈를 새롭게 알게 되어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한참 지켜보면 매일같이 썩생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잡지를 들고 서서 판매하는 노동은, 7살짜리 아이가 벽보고 서있으면 받는 모습을 언 뜻 떠올리게 한다.

홍리스의 재환을 돕는 잡지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면 그들의 재환의지를 보다 명확히 해주고, 재환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 현재 빅판의 판매활동은 팔리는 잡지 수로 보나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속 들리지 않는 빅판의 외침으로 보나 이론과 달리 다소 허비되는 노동인 듯하다. 물론 장사가 잘되는 구역의 빅판은 하루에 몇 십 권씩 판매해 수익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단 몇 곳에 불과하며 구역의 영향이 크다.

빅판활동을 보다 생산적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빅판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매할 잡지를 옮길 가방과 바닥에 잡지를 진열하기 위한 받침 등이 말했듯이 '홍리스의 재환을 돕는 잡지'이다. 어떻게 들으나 빅이슈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환 의사가 있는 홍리스인 빅판(빅이슈 판매원)에게만 주는 것이다. 빅판은 빅이슈 한 권을 팔 때마다 5,000원(잡지가 2000원, 이 중 1/2는 빅이슈 코리아(운영비)에게, 남은 1/2는 빅판의 순수익(재환에 쓰이는 개인비용)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역 주변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빅판 분을 쉽게 볼 수 있다. 빨간 조끼와 모자를 쓰고 두 손에는 잡지를 들고 있다. 분명 눈에 띄는 색과 의상이지만 '빅이슈'를 이전에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노점상과 다를 바 없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당하게 빅판이 그의

# 제 8 회 사진공모전

- **기간**  
4월 14일 (월) ~ 5월 20일 (화) 오후 6시까지
-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 **제출형식**  
8x10 크기로 인화해 제출
- **제출장소**  
학생회관 제1별관 (기업은행 맞은편 건물)  
우체국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 **발표**  
한성대신문 491호 (6월 2일 발행)
- **상금**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원  
佳作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의**  
한성대신문사  
: 02)760-4186/ 1236047@hansung.ac.kr  
한재원 편집국장  
: 010-5473-2642

-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제출하실 때 A4용지에 이름, 학과, 학년, 학번, 휴대폰번호, 작품명을 필히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佳作만 시상합니다.

순간, 기록이 되다



한성대 신문사